

# 늘푸른 물결

통권 289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0 2023



## 923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신례원역에서 장항선을 타고 서울에서 열린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해 석탄발전과 핵발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석탄·핵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



석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 ▶ 발행일 2023. 10.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가을별이 너무 좋아 / 박노해
- 4 지역소식1  
| “석탄·핵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 6 지역소식2  
|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동서발전 6위, 현대제철 7위
- 8 지역소식3  
|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
- 10 지역소식4  
| 석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 11 충남소식1  
| 2023 대백제전 앞두고 ‘공주보 담수’ 찬·반 논란 격화
- 12 충남소식2  
| “석탄발전소 반이 충남에... 기후정의 외치며 23일 서울 간다”
- 13 충남소식3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경제정책 및 거버넌스 강화 논의
- 14 충남소식4  
| 충남인권기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11월까지 정지
- 15 전국소식1  
| “석탄 그만” 화력발전 가로막은 기습 ‘기후시위’
- 16 전국소식2  
| 일회용품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환경단체 ‘반발’
- 18 전국소식3  
|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데... 4대강 감사 두 달 만에 급변경
- 19 9월 살림살이
- 20 9월 활동소식
- 22 10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가을별이 너무 좋아

박 노 해

가을별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의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가을별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슬픔을, 상처 난 욕망을,  
투명하게 비춰오는 살아온 날들을

작가소개

작가 박노해

1957년 전라남도 함평 출생

1983년 <시와경제> 등단

시집 『노동의 새벽』, 『겨울이 꽃핀다』, 『참된 시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사진 에세이 『라 광야 - 빛으로 쓴 시』, 『나 거기에 그들처럼』,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아요』, 『다른 길』, 산문집 『오늘은 다르게』,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1988년 제1회 노동문학상 1992년 시인클럽 포에트리 인터내셔널 로테르담재단 인권상.

## “석탄·핵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장항선 기후열차 타고 923기후정의행진 참가



장항선 열차안에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모습

당진환경운동연합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해 석탄발전과 핵발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외쳤다.

923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12시부터 사전행사에 이어 오후 2시 서울시청과 남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앞

정부종합청사 방향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향, 2개의 행진 경로로 나뉘어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기후정의 실현을 외쳤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네거리, 일본대사관 앞, 정부종합청사 방향 행진에 함께 참여했으며 행진 이후 오후 5시부터 역사박물관 앞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5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후 당진으로 돌아왔다.





신례원역에서 기후정의행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날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당진환경운동연합 16명의 회원들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신례원역으로 이동해 '기후위기충남행동'이 임대한 장항선 기후정의열차를 타고 충남지역 참가자들과 함께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해 '석탄·핵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를 외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시급성을 알렸다.

'923기후정의행진'은 △기후재난에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과 화

석연료로부터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철도민영화 중단, 공공교통 확충으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개발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상 5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서울 시내 거리를 누비며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글 : 사무국]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회원들

##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동서발전 6위, 현대제철 7위

2022년 배출량 동서발전 크게 줄고 현대제철 소량 늘어  
상위 10개 중 8개 업체가 석탄 사용, 전체 배출량의 45.4% 차지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2022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동서발전은 크게 줄고 현대제철은 소량 늘어났으나 배출량 순위는 동서발전이 전국 6위, 현대제철이 전국 7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석탄을 사용하는 8개 업체가 전체 배출량의 45.4%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한 2022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진화력을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에 비해 11.13%가 줄어든 29,155,613톤으로 전년보다 3,652,707톤이 줄었으나 배출량 순위는 변동 없이 전국 6위를 차지했다.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500,741톤으로 전년 대비 11,436톤이 늘었으나 배출량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전국 7위를 유지했다. 가스복합화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을 운영하는 지에스이피에스(GSEPS) 배출량은 3,138,025톤으로 전년 대비 28,668톤이 줄었으나 순위는 동일한 전국 34위를 기록했다.

배출량 상위 전국 1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업(6개)과 제철업(2개)이며 이들 8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70,664,625톤(tCO<sub>2</sub>-eq)으로 전체 배출량 596,465,268톤의 45.4%를 차지했다.

## 2022년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업체명	온실가스 배출량(tCO <sub>2</sub> -eq)
1	포스코	70,185,587
2	한국남동발전	35,384,901
3	한국남부발전	35,330,479
4	한국중부발전	31,840,511
5	한국서부발전	30,159,229
6	한국동서발전	29,155,613
7	현대제철	28,500,741
8	삼성전자	14,922,978
9	쌍용씨앤이	10,670,032
10	고성그린파워	10,107,564
11	S-Oil	9,386,360
12	지에스칼텍스	8,870,672
13	엘지화학	8,616,934
14	에스케이에너지	6,847,471
15	현대오일뱅크	6,453,281
16	롯데케미칼	6,214,656
17	한국지역난방공사	6,186,055
18	지에스동해전력	6,064,363
19	삼표시멘트	5,726,965
20	성신양회	5,113,860
(중간 생략)		
34	지에스이피에스	3,138,02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년도 업체별 배출량 명세서 기준>

현대제철 전경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석탄 사용 업체가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45.2% 보다 2022년 45.4%로 소폭 늘어나 문제”라며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 중단, 특히 배출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속한 탈석탄 추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 : 사무국]

##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

수청동 터미널에서 매주 캠페인 진행



지난 9월 2일 2차 서울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 당진환경연합 회원들이 참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매주 수청동 버스터미널 입구에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9월 2일 청계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이어 9월 9일 광화문네거리에서 개최된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후 서울시내를 행진하며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외쳤다. 또한 16

일 광화문네거리에서 개최된 4차 범국민대회와 23일 기후정의행진 후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5차 범국민대회에도 참여해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외치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 참가에 더해 매주 당진버스터미널 앞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며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양투기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하며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9월 6일 오후 4시30분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14차 캠페인을 진행한 데 이어 9월 11일





지난 9월 11일 당진신터미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5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전국행동에 당진환경연합 회원들이 참여했다.

오후 5시 15차 캠페인을, 9월 19일 오후 5시에 16차 캠페인을, 추석 전인 9월 25일 오후 5시에 17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후쿠시마 원전 폐로검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51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로한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은 실현 불가

능하다며 오염수 문제가 영원히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며 “핵오염수는 계속 발생하고 언제까지 해양투기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키는 것이 바다 생태계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글 : 사무국]

## 석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9월 16일 3차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 진행



9월 16일 해변정화활동에 참여한 회원들과 시민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은 9월 16일(토) 석문방조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올 해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해변 환경정화활동은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3여 명의 어린이,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석문방조제 석축에서 돌 틈에 방치된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와 페트병, 비닐봉투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 펼쳐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은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대부분 플라스틱인

데 그대로 놔둔다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조류, 어류 등을 통해 결국 우리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해변도 깨끗이 하고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기 위한 해변정화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 바다를 보살피는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세 번째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이어 10월 14일(토)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041-355-7661)로 신청이 가능하다.

[글:사무국]

## 2023 대백제전 앞두고 '공주보 담수' 찬·반 논란 격화

금강유역환경회의와 환경운동연합, 지난 15일 나란히 규탄 성명 천막 농성과 수중 시위 이어가는 이들에게 강제 행정대집행 나선 공주시 이들 단체 “지난해 9월 공주보 개방 후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 이행 촉구



환경활동가들이 공주보 담수가 진행되고 있는 금강에 들어가 합의를 위반한 환경부와 공주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백제문화제 전·후로 반복되는 ‘공주보 담수 찬성 vs 반대’ 대치가 2023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일제히 성명을 통해 공주보 담수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공주시를 규탄했다. 천막 농성 5일 차인 지난 14일 80여 명 인원을 대동해 강제 천막 철거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단지 백제문화제에 황포 돛배와 배다리를 띄우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5년째 공주보 담수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마나루 모래톱 천막 농성장은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철거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중 시위를 이어가며, 환경부를 향해 수문 개방을 거듭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정부에는 법도, 국민도, 절차도, 민주주의도 없다. 환경단체는 폭력도 쓰지 않고 그저 돛자리와 우산을 가지고 강변에 있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며 “이 패역한 정권과 공주보 담수를 강행하는 이들은 문화제를 빌미로 공주보 부분 해체 결정을 뒤집고,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환경회의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 보 운영 민관협의체를 통한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수문 개방 아래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겠다는 합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환경회의는 “수문을 닫은 백제문화제는 금강의 건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원래 의미를 살리지도 못한다”며 “과거 보가 없던 시절 고마나루를 비롯한 공주보 인근 유역은 모래밭이 발달하고 하폭이 좁아 나루터로 이용되던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문 닫기 후 공주보 인근에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소 녹조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녹조 심화 우려를 제기했다.

[출처:디트뉴스]

# “석탄발전소 반이 충남에... 기후정의 외치며 23일 서울 간다”

기후위기충남행동 기자회견  
 “핵 기술, 만능 해결책 아니야... 재생 에너지로 나아가자”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도민들이 오는 23일 열차로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리는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소속 도민들은 행진 참가에 앞서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관하는 것은 윤 정부의 핵발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 재난의 현실이 참담하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두고 단체는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관, 묵인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유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며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한 핵폐기물은 끊임없이 나온다. 이를 육상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결코 저렴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장점은 바람이 불고 해가 뜨는 곳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석탄 대신 태양과 바람의 재생 에너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장항선 72석 한량과 보령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대여한 버스 1대 등 최소 100여명의 도민들이 기후정의 행동을 위해 서울에 상경할 예정이다.

조순형 기후위기 충남행동 운영위원장은 (중략)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 피해가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화력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탈석탄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녹색 일자리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경제정책 및 거버넌스 강화 논의

충남도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 논의  
김명숙 의원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전환 위해 도민과의 소통 강화할 것”



지난 9월 26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천 방안으로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탄소중립경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는 충남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하며 각각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에너지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 남승홍 과장과 탄소중립정책과 이상모 과장은 탄소중립 경제도 선포에 따른 추진전략과 도가 계획 중인 ‘2045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순형 기후위기충남행동 위원장과 정석호 충남 마을만들기 센터장은 각각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거버넌스 정책에 대해, 전영노 충남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장과 김억수 충남 탄소중립지원 센터장은 각 센터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정책과제에 대해 발언하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을 맡은 김명숙 의원은 “탄소중립 과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성공적인 충남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충청뉴스]

# 충남인권기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11월까지 정지

대전지법 제2형사부 11월 16일까지 정지 결정...338회 정례회 기간 처리 미지수



충남도민들이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와 발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충남시민사회단체는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 효력 정지 기간이 늘어났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두 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1월 16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지  
난 25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는데, 이를 연  
장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4일  
까지 열리는 338회 정례회를 통해 두 조례 폐  
지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16일까지 효력 정지 기간이 늘  
어나면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

수가 됐다.

한편 두 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 취소 본  
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  
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은 ▲소송 원고의 적격성 여부 ▲폐지  
안 처리로 인한 충남도민과 학생 등이 입게  
될 피해 여부 ▲주민발안으로 추진된 폐지안  
의 적법성 여부 등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발  
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출처:충청뉴스]

## “석탄 그만” 화력발전 가로막은 기습 ‘기후시위’

환경단체, 삼척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습시위



환경단체 회원들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 그만’이라고 적힌 대형펼침막을 바닥에 깔고 석탄운송차량 운행을 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 이 참석하는 유엔기후정상회의(9월20일) 를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원도 삼 척시 근덕면 삼척블루파워 삼척석탄화력 발전소 앞에서 석탄운송차량 운행을 막 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제적인 화석연료 중단 운동에 연대하고 한국에 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산업 확대의 현실 과 대기업과 한국 정부의 기후약당 면모 를 폭로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 다. 환경단체 회원 5명은 2시간 남짓 운 송차량을 막다, 경찰에 연행됐다.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폐광산 터에 건 설 중인 2100MW(1050MW급 2기) 규모의 삼 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올해 10월 1호기, 내년 4월 2호기의 상업 가동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가 작성한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 르면 최대 출력 가동 기준으로 시간당 약 389톤, 연간 340만8480톤의 석탄을 태 운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1282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2019년 기준 광주와 대전 지역 배출량을 더한 것보다 많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에 맞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지만,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출처:한겨레]

##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환경단체 '반발'

충남도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 논의  
김명숙 의원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전환 위해 도민과의 소통 강화할 것”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사실상 전국 의무 시행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앞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제가 성과를 내고 다른 지자체나 기업이 호응하는 조처를 내놓는 가운데 장관이 공언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침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되나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중략)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됐어야 했지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유예와 지역 축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

이후 최근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공익감사를 벌인 뒤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에서만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 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확대 시행을 추진해야 했다. 당초 환경부의 계획도 시범지역의 1년 성과를 토대로 전국 시행 시점을 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축소 시행 9개월 만에 ‘지자체 자율 시행’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를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

## 제주·세종서 성과...환경단체·야당 비판 거세

하지만 환경부의 방침과 달리 제주·세종에서 조금씩 보증금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실제 보증금제 성과를 보면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달까지 약 314만 개 일회용 컵이 판매업장에 돌아왔다. 사용량 대비 반환량인 반환율은 지난달 둘째 주 61%로 시행 첫 달 12%에서 급상승했다.

특히 관광객이 많아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평가된 제주에서 반환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 반환율은 6월까지 30%대에 그쳤으나 7월 50%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둘째 주엔 63%에 이르렀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과를 내면서 서울시도 참여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다만 지자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결정권을 넘겼을 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며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일부 발췌]

#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데... 4대강 감사 두 달 만에 급변경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보 존치 반영, '자연성 회복' 원칙 삭제



환경단체들이 9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지속적인 국가물관리계획 변경을 강행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국가 물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수정된 계획에는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하천관리 방향도 삭제됐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환경부 정책 변경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국가 물관리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면밀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변경안이 확정돼 25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20일 서면 심의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계획 변경은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

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개방 정책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내용(참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등이다. '자연성 회복' 등 용어 일부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뀌었다. (중략)

이번 계획 변경으로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과학적·객관적이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환경단체 등은 국가 법정계획 수정에 필요한 추가 연구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한국일보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9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12,800,105	인건비	급여	5,750,000
회 비	개인회비	4,505,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550,050
	계	4,575,000		계	6,715,3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243,220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200,000		세금과공과금	107,530
	계	443,220		소모품비	37,200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306,880
	계	-		기타운영비	20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653,51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124,05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1,175,070
	계	-		생활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709,510
	계	-		모금사업	26,870
기타수입	기타수입	2		연대사업	402,103
	계	2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3,437,60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7,011,884
		계		7,011,884	
월수입 총계		5,018,222	월지출 총계		10,806,443
수입 합계		17,818,327	지출 합계		17,818,327



### 9월 운영위원회 회의 및 후쿠시마 오염수와 안전한 먹거리 강의

9월 6일 에코생협 당진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안전한 먹거리 김혜정 대표의 강의를 듣고 9월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당진 캠페인 진행

9월 6일 당진신터미널광장에서 당진환경연합 회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2차 숙의과정 회의

9월 7일 당진환경연합 사무실에서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2차 숙의과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 위원회 회의

9월 15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를 열었습  
니다.

---



##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히트펌프 세미나

9월 18일 당진시에너지센터에서 당  
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히트펌프 세  
미나를 가졌습니다.

---



## 10월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

9월 26일 카페에서 10월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 01 일반사업

- ❖ 10/0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차 시민포럼 준비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남부사회복지관 '지구방위대' 환경박람회 준비 회의 - 당진복지타운
- ❖ 10/05 2023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 스플라스 리솜  
태안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대화 - 태안문화원  
핵오염수 대응 환경연합 집담회 - 온라인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후원의 밤 기획단 2차 회의 - 사무실
- ❖ 10/06~10/07 충남 탄소중립 한마당 - 내포혁신플랫폼
- ❖ 10/07 서울대학교 학생 환경현안 현장 방문 - 현대제철, 당진화력, 대산산단  
남부사회복지관 '지구방위대' 환경박람회 - 삼교호 바다공원
- ❖ 10/10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 당진시청
- ❖ 10/11 당진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전체회의 - 당진복지타운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0/12 탑동초등학교 환경교육 - 탑동초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 온라인  
석탄화력 회처리장 관련 영상제작팀 간담회 - 사무실
- ❖ 10/13 당진시 지역에너지계획 모니터링 2차 회의 - 사무실
- ❖ 10/14 해변환경정화활동 '쓰담쓰담' 4회차 - 대호방조제
- ❖ 10/17 당진지속협 시민학교 - 미정
- ❖ 10/18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2차 시민포럼 - 내포혁신플랫폼
- ❖ 10/19 충남 정의로운 전환 포럼 4차 회의 - 미정
- ❖ 10/23 2023 후원의 밤 -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 10/27 녹색철강네트워크 전략 회의 - 미정
- ❖ 10/31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체회의 - 온라인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0/31(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웅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맹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장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하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순영 이승호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 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혜슬 이혜정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본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웅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10월 6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전환사회로

위기를 뛰어 넘는 힘! 회원과 시민이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 사회로 가는 길! 그 길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당당히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에 함께 해주십시오.

- | 날 짜 | 2023년 10월 23일(월) 저녁 6시30분
- | 장 소 | 당진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당진시 남부로 256)
- | 내 용 | 당진환경운동연합 활동 영상/ 난리부르스 밴드 공연  
공동의장단 인사/ 연대사 및 축사/ 참가자 나도 한마디

my  
green  
life

## 2023 에코두레생협 당진 나눔장터

풍성한 가을처럼 여러분의 이웃사랑을 보여주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들! 장터에서  
판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증해 주세요~  
나눔 장터의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전달됩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에코생협 당진점 주차장

| 기증물품 | 옷, 가전제품, 아이들 장난감, 책, 주방용품 등  
(10월 25일까지 매장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